모든 매매는 패턴에 대한 투자이다

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하고 이 패턴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하는것

즉 투자는 패턴의 유지와 패턴의 붕괴 사이의 이야기

1. 정교한 (단기,장기)패턴을 찾는것이 먼저

2. 궁극적 의사결정은 Yes(이패턴의반복)나 NO(패턴의붕괴) Pending(홀딩)으로 판단할수있어야 함

3. 패턴이 없는것에서 패턴을 찾는 삽질만 하지 않으면 된다

## 추세매매

따라서 추세매매의 가장 세련된 형태는 패턴이 지속된다는 것에 베팅하는것

## Contrarian

지속되오던 패턴이 깨지는 데 베팅하는것이 (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므로 이득이 큼)

## 패턴의 예

Ex\_1)코스피가 박스권인것이 몇년간 지속된다면, 계속 박스권일 것이라고 봄

Ex\_2)2008년까지는 10년간 신흥국주식의 패턴이 좋다가 2018년까지는 미국주식만 좋음 :10년간 번갈아 가면서 선진국이 좋았다 신흥국이 좋았다의 패턴이므로 앞으로는 신흥국 시장이 좋아질거야

Ex\_3) 10년에 한번씩 경제위기가 오니까 이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지

Ex\_4) 90년대 이후 안전자산의 영역이 확실해지고, 위험이 오면 장기국채 ,금, 엔화로 몰려가더라 이것도 다 패턴임

## 

## 

## 임계점이 중요

패턴은 언젠가는 깨진다

어떤 점에서 패턴이 깨졌다고 인정할 것이냐

Ex\_ 갑자기 코스피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올라갔다.

Ex 갑자기 디커플링된것? 미국장보다 더 때려맞던 한국장보다 미국이 더 빠지네?

전세계 10초 2초만 투자

머리로서는 이해는 못하겠다

사람들은 패턴을 찾지 않고 설명을 찾고있다